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서언(3) 왜 <금강경>을 골랐나

선의 소의경전, 혹은 교와 선의 접점
 <금강경>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전입니다. 조제사 근처를 오가는 길에, 혹은 문득 들른 산사에서, 불교신도라면 불교방송에서 새벽을 열고 밤을 닫을 때 유장하고 낭랑하게 울리는 이 경전의 독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잠결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예불하며 낮게 읊조리는 이 경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내용을 전혀 몰랐지요. 무슨 주문처럼 기이하고 낯설어서 거 좀 그만하시라고 어머니께 역정을 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뒷줄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나 알고 따라하는 거유?” 이런 당돌하고 불경스런 질문에 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일장 법문을 펼쳐놓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금강경>의 이름으로, 다니던 절에서 들던 스님들의 말씀, 이런 저런 책에서 읽은 지식, 당신의 삶에서 겪은 경험들이 뒤섞인 교훈적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좀 억지스럽고 견강부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강경>의 문자는 대화를 나온 내가 들여보아도 모를 소

육조 구결(口訣)을 남겼습니다. 그 첫머리에 그는 <금강경>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이 깨닫고자 하는 핵심이 <금강경>에 잘 표명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뜻을 조선의 선종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굳이 소의경전이 필요하겠느냐”고 썩 내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키신 까닭이 선이 표방한 불립문자의 방법에 더욱 철저하다는 뜻이

지는 교상판석(敎相判釋)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태와 화엄의 것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분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영미어권에서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과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원시불교에 초점을 두어 대승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 대승 가운데서도 유식이 정통이라는 사람, 반야가 붓다의 관점을 가장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람, 화엄이 불교적 깨달음의 최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스님의 말씀처럼 불교는 능수능내, 한 마디로 끝낼 수도 있고, 팔만 사천 법문으로도 다룰 수 없습니다. 근기와 인연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전과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위의 분류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의 성향과 근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설 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설화적이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이나 <화

관비로 핵심에 닿겠다는 분들은 화두를 들 만합니다. 그러나 이 둔초가(頓超家)의 방법은 보통의 근기에 관할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의 비밀 늘살 가까이에서 존재

이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은 <대승기신론>입니다. 다들 원호 스님의 소와 별기를 더 중시하지만 저는 그 짧고 간결한 대승기신론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낯선 구절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원호 스님의 주석과 스즈키의 영역을 참고로 들여다 봅니다. 처음에는 이 강좌를 <대승기신론>을 읽고 해석하는 자리로만 들리고 했습니다. 신문의 처음 공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결국 <금강경>으로 낙착시킨 것은, 이 경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입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친숙한, 그러면서도 낯설고 어려운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제가 불교를 말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만사천의 법문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불교의 비밀은 여러분이 늘 말하는 그 익숙한 불교용어와, 늘 독송하는 사구체 속에 있습니다. 그 뻔한 구절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눈에 밟힐 듯 선명하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은 불교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법문이란 누구나 아는 공이니, 무아니, 법제니, 사성제니를 우리네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불교 용어나 수많은 주석의 주석들은 가급적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낯고 쉬운 언어로도 우리는 충분히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문학회연구원

가장 친숙하기에 가장 낯선 경전

있지, <금강경>의 취지가 선의 목표와 어긋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문자를 ‘통해’ <금강경>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문자는 결국 쓰러뜨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문자 밖에서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이 과연 불교의 중심인가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금강경>이 대승 중론의 대표이고, 또 선과 교의 접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불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논란과 견해차가 있어 왔습니다. 아시타시파 팔만사천의 법문들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 화파의 발전에 따라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구난방의 한역 경전들을 놓고, 그 가치와 위계를 따

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천태를 불교적 선교방편(善巧方便)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도야 말로 종교로서의 불교를 성립시키는 토대라고 말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학을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어리석음”으로 쓸어버리고,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해 불교의 취지에 직접 관여 경전들을 놓고, 그 가치와 위계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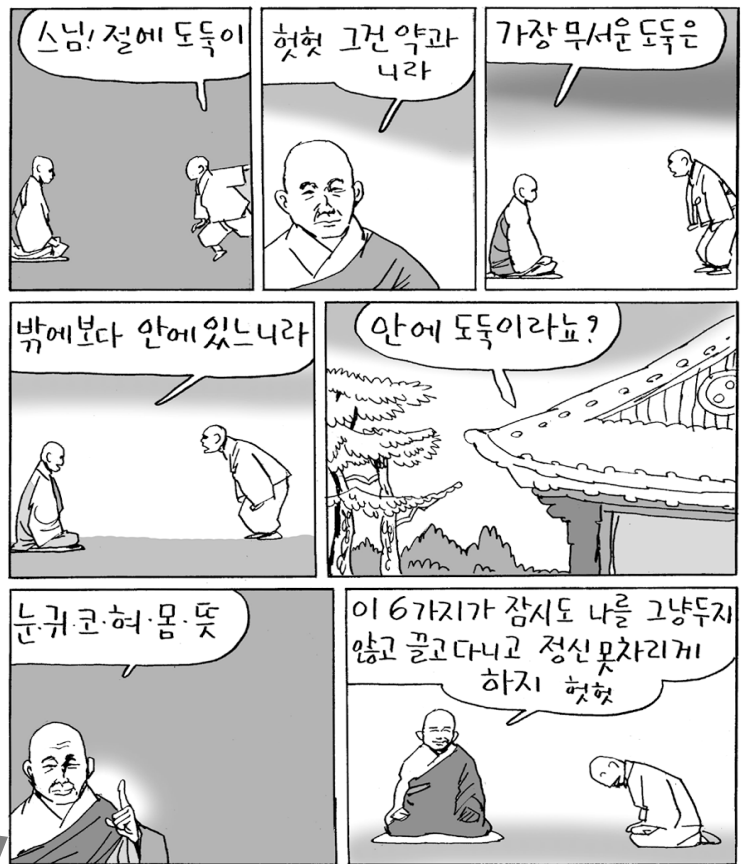
엄경>이, 일상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를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아비달마나 유식이 맞겠고, 직접적이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의 문헌을 읽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잡담 제하고, 핵심만 추려, 불교의 체계와 골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블테면 <대승기신론>이 제격입니다. 이도 저도 번잡하고

주장사 따라...

부수 스님의 '도둑'



조태호



부수 스님 (1901~1974): 호는 해안, 전북 부안 생. 내소사에서 경화 스님에게 출가. 불교중앙학원 수료. 금산사 주지. 1969년 불교전통회 설립.

“열반과 보리의 차이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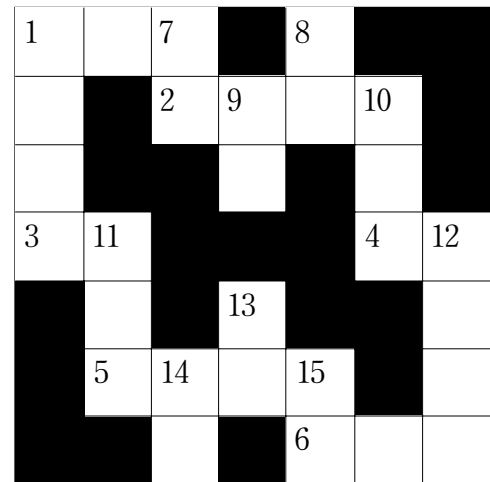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의 증득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보리의 증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함에 있어서 열반을 구하는 것과 보리를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ID '학인')

답1: 열반과 보리(證得)는 같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켜를 때, “어둠이 사라졌다” 라는 표현이 열반이라면 “방이 환하다” 라는 표현이 보리이다. 상황은 하나이지만 시각과 표현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 열반과 보리임에도 강조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 다른 불교 가전개념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세상의 고통(고)에 대한 통찰과 그 고의 소멸을 강조한다. 그래서 4성제 수행을 통해 열반(고통의 소멸)의 증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승경전인 <금강경> 등에서는 아득다라삼삼보리를 많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부파불교시대에 열반에 대한 오해 지니는 실제화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다. 부파불교시대에 열반을 구하는 것은 자기(自) 체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대승에서 그들을 소승이라 비난했기 때문이다.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는 숲속에서 선정을 닦음이 강조되고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이 강조된다. (‘서림’)

답2: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며, 그것은 깨달음으로 성취된 진여, 무분별지혜의 경지이다. 유식학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원리를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현상계의 허망된 식(識)을 진여의 무분별지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전식득지는 전의(轉依)로서 이뤄지는데, 전의는 자기 존재의 기체(基體)를 허망한 상태(現계소집성)에서 진실한 상태(원성성)로 질적으로 변혁시키는 과정, 또는 그 과정의 결과로 증득된 열반과 보리를 가리킨다. 보리와 열반은 이 수행의 원리를 통해 동시에 증득되는 결과물이란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지혜(보리)와 고통의 소멸(열반)이란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개념일 뿐이다. (‘유식’)

답3: 원효는 그의 <열반경종요>에서 열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이론들을 그 특유의 화정(和靜)의 논리로 조화시키고 있다. 열반의 번역 문제에 대해 원효는 밀어(密語)로 보면 열반은 많은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지만, 현어(顯了語)로 보면 음성에 따라 중생에게 말한 것이기에 열도(熱度)라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효에 따르면 열반은 상락이정(常樂我淨)의 사덕을 갖는데 이것은 부정적 허무적 견해를 버리고 망집을 떠난 중도적 지혜(보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원효제자’)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백제시대 부여 지역에 있던 성, 백제의 도읍 2. 권세가나 부자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시장을 이루다시피 불빈다는 뜻의 한자성어 3. 잘못을 나무라거나 맞춘 4. 뒤쫓아 가며 공격함 5.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를 뜻하는 한자성어 6. 마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지혜 스님이 저술한 책.

정답은 26면에

1. '석가의 딸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세계 최대 여성불자단체의 명칭 (Sakyadhita) 7.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자, ○○, 연가, 보살 8. 중생이 분다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여래장과 비슷한 말 9.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10. 패종시계에 달려있는 추 11. 이마로 세계 받아치는 행위, 김일 선수의 이것이 유명 12.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울곡 이이가 편찬한 책 13. 세의 보금자리 14. 불법을 수호함 15. 얼굴을 씻음.